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 무기력 호랑이 ... 또 역전패



**‘감독 사퇴’ 어수선한 LG에 또 1-2 ‘덜미’**  
**득점찬스 번번이 놓쳐... 하위권 탈출 기회 날려**

서울 원정에 나선 ‘호랑이 군단’이 사령탑 잃은 LG에게 위닝 시리즈를 내주고 왔다. KIA 타이거즈가 27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1-2로 역전패를 당했다. 25일에 이어 다시 역전패를 당하면서 위닝 시리즈를 내줬다. 김기태 감독의 사퇴로 사기 꺾인 LG와의 승부. KIA는 휴식기 효과도 살리지 못하면서 꼬리를 내렸다. 예상과 달리 KIA 임준섭과 LG 리오단의

팽팽한 마운드 대결이었다. 두 투수의 기싸움에 7회까지 단 한 명의 주자도 홈을 밟지 못했다. 임준섭이 삼자범퇴로 1회를 시작했지만 2회 1사에서 위기를 맞았다. 이진영과 최승준의 연속 안타에 이어 이병규(7번)에게 볼넷을 내주며 1사 만루, 윤요섭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오지환을 중견수 플라이로 처리하면서 위기를 넘겼다. 임준섭은 이후 매 이닝 주자를 내보내

는 했지만 두 차례 주자를 잡아내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삼진을 뽑아내는 등 6이닝 6피안타 3사사구 4탈삼진 무실점으로 제 몫 이상을 해냈다. 상대 리오단의 호투도 눈부셨다. KIA 타자들이 5회까지 리오단 공략에 실패하면서 삼자범퇴로 번번이 덕아웃으로 물러났다. 6회에도 김주형의 중견수 플라이와 차일목의 삼진이 나오면서 리오단의 퍼펙트 행진이 계속됐다. 2사에서 김선빈이 중전 안타

로 처음 1루 베이스를 밟는데 성공했지만 리오단의 견제에 아쉽게 됐다. 7회 1사 만루의 기회도 살리지 못한 KIA가 8회 김주형의 한방으로 0-0의 균형을 깨는데 성공했다. 김주형이 리오단의 바깥쪽 높은 직구를 잡아당겨 좌중간을 넘기는 125m 짜리 솔로포를 만들었다. 그러나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다. 8회 심동섭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임준혁이 손주인에게 좌전안타를 허용했다. 조쉬벨의 1루수 앞 땅볼에 이어 정의운의 안타가 나왔다. 1사 1·3루에서 박경태로 투수가 교체됐지만 이진영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1-1. 대타 이병규의 2루수 앞 땅볼 때 3루에 있던 정의운이 홈을 밟으면서 점수는 1-2이 됐다. 9회 마지막 공격에서 신종길이 LG 마루

리 봉중근을 상대로 좌전안타를 터트리며 마지막 불씨를 살렸다. 1사에서 나지완이 고의 사구로 걸어나가면서 1사 1·2루, 투수 송구 실책으로 2루에 있던 신종길이 3루에 안착했지만 나지완의 대주자로 들어간 신인 강현율이 스타트를 끊었다가 협살에 걸렸다. 박기남의 볼넷으로 만루까지 만들었지만 안치홍의 타구가 우익수 파울플라이가 되면서 경기는 1-2패로 끝났다. 지난 25일 에이스 양현종을 출격시키고 도 투수 교체의 잇박자와 오심 속에 역전패를 당했던 KIA는 다시 또 역전패를 허용, LG의 시즌 첫 위닝 시리즈의 희생양이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7일 오후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4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경기 6회초 2사1루에서 1루 주자 김선빈이 리오단에게 견제사를 당한 뒤 그라운드에 누워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넥센 여자골프 신인 백규정 우승

백규정(19·CJ오쇼핑·사진)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총상금 5억원)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 신인인 백규정은 27일 경남 김해의 가야골프장(파72·666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 더블보기 1개를 기록해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합계 9언더파 207타의 성적을 낸 백규정은 장하나(22·비씨카드)를 2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1억원이다. 국가대표 출신 백규정은 지난해 2부 투어인 드림투어에서 활약했으며 시드전을 1위로 통과한 뒤 올해 KLPGA 투어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175cm의 큰 키에서 나오는 장타가 일품이라는 평을 듣는 선수다. 백규정은 8번 홀(파4)부터 3연속 버디를 낚아 2위권에 3타 차로 달아나 일찌감치 승기를 잡는 듯했다. 그러나 11번 홀(파4)에서 더블보기가 나와 추격자들에게 쫓겼고 14번 홀(파4)에서는 장하나와 보기-버디로 엇갈리며 단독 1위 자리를 장하나에게 내주기도 했다. 11번 홀 두 번째 샷이 아웃 오브 바운즈(OB) 지역으로 날아가는 바람에 10번 홀까지의 상승세가 단숨에 꺾였다. 16번 홀(파5)에서 다시 반전이 생겼다. 장하나의 티샷이 나무가 우거진 언덕 속으로 날아가는 바람에 한 타를 잃었고 백규정은 이 홀에서 약 5m 정도 되는 만만치 않은 거리의 버디를 낚아 재역전에 성공한 것이다. 1타 차로 앞선 가운데 18번 홀(파4)에 들어간 백규정은 약 8m 가까운 거리의 먼 버디 퍼트에 성공하며 KLPGA 투어 데뷔 후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백규정은 “아마추어 때부터 프로 대회 나가서 우승할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지만 번번이 아쉬운 결과에 그쳤다”며 “지난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손녀가 1등 하는 것을 못 보셔서 아쉽다. 꼭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하는 7언더파 209타를 기록해 단독 2위에 올라 준우승 상금 575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KLPGA 투어 상금왕 장하는 시즌 상금 1억6365만원으로 상금 순위 2위에서 1위로 올라선 것에 만족하게 됐다. 박주영(24·호반건설)과 김민선(19·CJ오쇼핑), 김지희(20·대방건설)가 나란히 6언더파 210타로 공동 3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 공동 9위까지 12명 가운데 백규정, 김민선 등 신인이 6명이나 돼 ‘신인 돌풍’이 거센 대회였다. /연합뉴스

## 광주일고, 주말리그 전반기 우승

### 동성고와 5승1패 동률 승자승

광주일고가 고교야구 주말리그 전반기 전라권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일고가 27일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진흥고와의 주말리그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체지선의 홈런 등 장단 12안타로 8-2 승리를 거뒀다. 화순고를 제압한 광주 동성고와 5승1패로 동률을 이뤘지만 승자승에 따라 광주일고가 전반기 우승팀이 됐다. 2회 광주일고 타선의 집중력이 돋보였다. 선두타자 노민석이 볼넷으로 출루한 뒤 1사 후 권용철의 투수 앞 번트 안타가 나왔다. 최지훈의 적시타가 이어지면서 광주일고가 선취점을 가져갔다. 광주일고는 류승현의 볼넷과 정다은의 스윙 번트로 분위기를 살린 뒤 상대 2루수의 실책과 송동욱의 2타점 적시타 등으로 대거 5점을 뽑는데

성공했다. 3회 체지선의 중월 솔로포까지 나오면서 광주일고가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체지선은 5회 우중간을 가르는 3루타, 7회 좌익수 키를 넘기는 2루타 등 사이클링 안타에 단타 하나가 부족한 활약을 했다. 체지선은 승리까지 거머쥐면서 공·수에 서 만점활약을 했다. 선발로 나온 체지선은 5이닝 2피안타 4볼넷 3탈삼진 2실점의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다. 화순고와 대결을 벌인 동성고는 0-1로 뒤진 5회 볼넷과 몸에 맞는 볼로 무사 1·2루를 만들었다. 이재홍의 보내기 번트에 이어 최정현과 신범수의 3루타가 연달아 나오는 등 동성고는 5회에 4점을 만들며 4-2로 역전승을 거뒀다. 순천 효천고는 군산상고와의 전라권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4-1 강우 콜드 게임을 거두면서 5연패 뒤 첫 승을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TX 이용 KIA 야구팬 입장료·운임 할인

### 타이거즈-코레일 광주본부

야구와 열차가 만나면 가격이 내려간다. KIA 타이거즈와 코레일 광주본부가 열차를 이용하는 야구 팬들에게 챔피언스필드 입장료와 열차 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다른 지역에서 챔피언스필드를 찾는 관람객은 코레일 열차 티켓(승차일 전후 7일까지 유효)을 소지하면 입장료 1000원을 할

인 받는다. 또 동호회·클럽 등 야구팬 20명 이상이 KTX를 이용할 경우 열차 운임의 15~3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코레일 광주본부는 광주역 전광판에 KIA 경기 일정과 이벤트 홍보 영상을 표출하는 등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야구 경기와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문의 : 코레일 광주본부·062-525-4835)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발목 부상 秋

## “보고 싶다”

### 4경기 연속선발 제외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32)가 4경기 연속 벤치에서 경기 시작을 지켜봤다. 미국 댈러스 모닝뉴스는 27일(한국시간) “예상했던 대로 추신수는 워싱턴주 시애틀의 세이프코필드에서 시작하는 시애틀 매리너스전 선발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22일 오를랜드 어슬레틱스와 경기에서 7회 1루 베이스를 밟는 도중 왼 발목을 다친 추신수는 27일 경기를 앞두고 실외 타격훈련을 하려 했으나 트레이너의 만류로 간단한 러닝과 실내 타격훈련만 했다. 아직 경기에 나설 수 있는 몸 상태는 아니지만, 텍사스는 추신수를 부상자 명단(DL)에 넣지 않기로 했다. 추신수는 “일주일 정도 쉬면 회복할 수 있다”고 자신했고, 론 워싱턴 감독도 “추신수가 오래 자리를 비울 상황이 아니다”라고 추신수의 빠른 복귀를 기대했다. 댈러스 모닝뉴스는 “이르면 29일 오를랜드와 홈 경기에 추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